

KIA 1위 질주 ‘덕아웃’을 보라

‘응원방’ 덕아웃

승리 목표 위해 일사분란 움직임... “질 것 같지 않다” 서로 격려



지난 5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4회초 무사 1루 KIA 나지완이 투런 홈런을 날리고 더그아웃에서 동료 선수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공부방’ 덕아웃

헥터·양현종 ‘특급 과외’에 임기영 쑥쑥...이명기, 나지완·버나디나 타격 배워



지난 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앞서 이범호(가운데)와 고효준이현련에 나선 넥센 채태인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덕아웃에서 답을 찾는 ‘업그레이드 동행’이 KIA 1위 질주의 숨은 원동력이다.

지난 4월14일 단독 1위 자리에 오른 ‘호랑이 군단’은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며 선두 자리를 굳게 수성하고 있다. 1위 KIA의 힘은 덕아웃에 있다.

경기 시간 KIA 덕아웃은 뜨거운 응원의 무대이자,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사랑방 그리고 승리를 위해 고민하는 공부방이다.

10일 kt와의 홈경기에 앞서 1위 질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어느 정도의 모습일지 나도 궁금했었는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어제(경기 도중 비가 왔는데) 선수들끼리 날씨도 확인하고 알아서 행동을 하더라. 서로 걱정하고 도와주면서 야구를 하고 있다. 타순에 관계없이, 보직에 상관없이 표정 변화 없이 잘 해주고 있다”고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기태 감독의 칭찬처럼 KIA 선수들은 덕아웃에서 서로 응원하고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질 것 같지 않다”며 끝까지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선수들은 덕아웃에서 야구 내공도 쌓아가고 있다.

올 시즌 선발진의 ‘셋방’로 급부상한 투수 임기영도 동료와의 덕아웃 대화를 통해서 야구 실력을 업그레이드 한 ‘우등생’이다.

임기영은 “등판이 아닌 날에는 (양)현종이 형한테 질문을 많이 한다. 어떻게 몸 관리를 하고 이닝을 풀어나가는 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 등판 날에는 주로 헥터에게 질문을 한다. 직구와 변화구 어떤 패턴으로 던지는 게 좋은 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지 등에 관해서 묻고 배우고 있다. 그런데 질문을 많이 했더니 헥터가 피곤하다고 그만 물어보라고 하더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리그를 대표하는 두 투수를 ‘특급 과외 선생님’으로 둔 임기영은 이들의 노하우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쑥쑥 성장하고 있다.

“안타 제조기”로 필필 날고 있는 이명

기의 활약 뒤에도 동료가 있다.

4월7일 4대4 트레이드를 통해 SK에서 이적했던 이명기는 시즌 초반 나지완의 조언을 통해 타격감을 잡았다.

“감이 좋지 않을 때 히팅 포인트를 앞에 두고 쳐야 타이밍이 늦지 않는다”는 나지완의 이야기를 참고해 감을 잡았다고 이야기했었던 그는 최근에는 버나디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2번 타자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앞에서 먼저 공격을 펼치는 토타자 버나디나를 교과서로 삼고 있는 것이다.

9일 3안타와 함께 희생플라이를 기록하며 타자 수순선수가 된 이명기는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어서 더 자신 있게 타격을 게 되는 것 같다”며 “경기를 할 때 앞을 있는 버나디나 타석을 유심히 본다. 나와 타격 스타일이 비슷한 좌타자라서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승부를 할 지를 미리 살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잘 아는 동료라 스스럼없이 대화를 하고 격려를 하는 KIA 선수들. 야구 실력까지 함께 키워가는 ‘업그레이드 동행’이 2017시즌 KIA의 또 다른 전력어 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종길 “22타수 8안타...대타 타율 1위죠”

김기태 “김주찬 안맞는데 첫 타석부터 만루”

덕아웃 T 특독

▲준비하고 있어요 = ‘벌터 플레이어’의 대표 주자 서동욱의 변신은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해 ‘무조건’ 트레이드로 넥센에서 친정 KIA로 돌아온 서동욱은 2루수는 물론 1루수와 우익수로 나서 안정감 있는 수비를 선보였다. 올 시즌에도 이적 후 처음 3루수 역할도 맡는 등 멀티 플레이어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3루에서도 안정감 있는 실력을 과시한 서동욱은 “3루에 나갈 때는 빠른 타구에 집중한다. 3루는 빠르거나 빗맞은 타구 등 극과 극의 타구가 오기 때문에 핸들링이 중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공이 왔어요 = 주전 유격수 김선빈이 무릎 통증으로 빠지면서 KIA는 9일에 이어 10일에도 김지성을 유격수로 선발 출전시켰다. 처음 유격수로 나서 실수를 하

기도 했었던 김지성은 9일에는 깔끔한 수비로 김선빈의 공백을 잇게 했다. 10일 훈련에 앞서 전날 수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김지성은 “그냥 공이 왔어요. 공이 잡기 쉽게 왔어요”라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대타 타율 1위입니다 = 올 시즌 최고의 대타로 활약하고 있는 신종길이다. 10일 훈련 시간에 장비를 정리하던 신종길이 “대타 타율 1위”라며 입을 열었다. 신종길은 “대타로 나가면 안타를 치기 정말 어렵다”면서도 “어제 경기에서는 못 쳤는데 합하면 22타수 8안타가 될 것이다”고 자기 자랑의 시간을 가졌다.

▲재는 우리와 달라 = 10일 kt와의 경기에 앞서 덕아웃에 ‘고민 상담실’이 열렸다. “어떻게 하면 안타를 치나요?”라고 묻는 김주찬과 후배의 이야기를 들던 이범호. 김주찬이 “형우 형과 해설로 와 있는 이범규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응 그거 공 보고 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 너털웃음을 터트리자 이범호는 “(최형우) 재는

우리과 달라. 좌타자이기도 하고 차이가 있다”고 답을 했다. 한참 타격에 관해 이야기하던 두 사람의 결론은 “야구 참 어렵다”였다. 김주찬은 개막 후 계속된 타격 부진 속에 1할대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역시 초반 흐름이 좋지 못했던 이범호는 최근 5경기에서 8안타를 때린 데 이어 지난 10일 시즌 첫 마수결이 홈런을 치면서 한숨 돌렸다.

▲첫 타석부터 만루더라 = 풀리지 않고 있는 김주찬 고민이다. 지난 시즌 팀의 해결사로 맹활약했던 김주찬이지만 올 시즌은 좀처럼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3번 타자로 꾸준하게 기용을 해왔던 김기태 감독은 9일 kt와의 홈경기에서 김주찬을 6번 자리에 배치했다. 김주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계산이었지만 공교롭게도 김주찬은 1회 첫 타석에서부터 2사 만루 상황에 직면했다. 결과는 투수 앞 땅볼. 이에 대해 김 감독은 “하필 첫 타석부터 만루더라. 그래도 2회 타자들이 점수를 내주니까 두 번째 타석에서는 편하게 치는 모습이었다”고 언급했다. 김 감독은 또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맘 편해질 수 있도록 코치들과도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콜로라도! 그 때와는 다르다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원수 투수 류현진(30)이 12일 오전 9시 40분(한국시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시즌 2승에 도전한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10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에 앞서 현지 언론에 류현진의 12일 등판을 확정해 발표했다.

영당이 타박상으로 10일짜리 부상자명단(DL)에 오른 류현진은 해제와 동시에 곧바로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다저스 구단은 지난 2일 류현진을 부상자명단에 올렸다.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을 주말계 선발로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브랜던 매카시의 부상자명단 등재 등으로 선발진에 변화가 생기자 계획을 바꿨다.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에게 하루 더 휴식을 주고 류현진을 12일에 등판토록 한 것이다.

류현진은 1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서 5.1이닝 동안 1점만 주고 호투해 올 시즌 5번째 도전 만에 첫 승리(4패)를 안았다.

이 경기에서 2루 슬라이딩 중 영당을 다쳐 뼈근합을 호소한 류현진은 곧바로



류현진이 지난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의 2017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 5.1이닝을 1실점으로 막고 973일만에 선발승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부상자명단에 올랐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으나 다저스 구단은 현재 6명인 선발 투수를 효과적으로 기용하고자 류현진을 부상자명단에 올리는 전략을 폈다.

류현진은 첫 승리를 거둔 날 시즌 최다인 삼진 9개를 뽑아냈고, 두 경기 연속 홈런을 허용하지 않고 1점씩만 내주는 안정된 투구로 ‘괴물’의 확실한 부활을 알렸다.

류현진은 지난달 8일 쿠어스필드에서 시즌 처음으로 마운드에 오른 이래 34일

류현진, 시즌 두 차례 등판서 피홈런 4개 등 2패 전성기 위력 되찾고 쿠어스필드서 세 번째 만남

만에 다시 ‘타자들의 천국’ 마운드에 선다. 그는 당시 4.2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6개를 맞고 2실점 하며 시즌 첫 패배를 안았다.

12일에 등판하면 류현진은 올 시즌에 한 콜로라도 타선과 세 번째로 맞붙는다. 류현진은 이전 두 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 5.06을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두 번째 대결에선 홈런 3방을 얻어맞는 등 올 시즌 피홈런 6방 중 4방을 콜로라도에 헌

납했다. 그러나 류현진이 전성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되찾은 만큼 이전과 다른 투구 내용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류현진은 최근 2경기에서 속구 대신 체인지업과 커브의 구사 비율을 높인 현란한 볼 배합으로 정타와 집중타를 피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수를 질주하는 로키스 타선의 예봉을 꺾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오승환 1이닝 퍼펙트...시즌 8세이브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시즌 8번째 세이브를 올리고 팀의 역전승을 완성했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는 시즌 첫 4출루 경기를 펼치며 팀의 대승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승환은 10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문경기에서 6-5, 1점 차로 앞선 9회말 팀의 5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오승환은 첫 타자 J.T. 리들을 상대로 3구째 94.3마일(약 152km) 포심패스트볼을 바깥쪽으로 쉼터 유격수 앞 땅볼을 유도했

다. 이어 토머스 텔리스는 공 2개 만에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오승환은 디 고든을 맞아서는 95마일(약 153km)짜리 ‘돌직구’를 연신 뿌리며 패조의 컨디션을 자랑했고, 좌익수 파울플라이로 1이닝을 세 타자로 깔끔하게 틀어막으며 시즌 8세이브(1승 1패)째를 수확했다. 팀은 원정 3연전을 싸울 예정이다.

추신수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방문 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몸에 맞는 공 1개와 2개의 볼넷 포함, 2타수 1안타(2루타) 2득점으로 시즌 첫 4출루 경기를 작성했다. /연합뉴스

‘시즌 13호’ 타임즈 ML 홈런 1위

KBO리그 NC 다이노스 출신의 내야수 에릭 테임즈(31·밀워키 브루어스)가 두 경기 연속 대포를 가동하며 메이저리그(MLB) 전체 홈런 부문 공동 1위로 올라섰다.

테임즈는 10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벌인 2017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결승 투런포 포함 5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의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간 테임즈는 시즌 타율을 0.324에서 0.327(113타수 37

안타)로 끌어올렸다. 시즌 13홈런에 24타점을 기록 중이다. 0-1로 뒤진 1회말 무사 1루에서 첫 타석을 맞은 테임즈는 보스턴 좌완 선발 드루 포머렌츠를 상대로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역전 투런포를 터트렸다.

시즌 13호 홈런을 쏘아 올린 테임즈는 이로써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 라이언 지머먼(워싱턴 내셔널스)과 함께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부문 공동 1위로 도약했다. /연합뉴스